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로 인해 4개의 중요 성읍을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실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여 실수가 아닌 승리로 바꾸어 사명의 걸음을 계속 걸어갔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실수하지 않기 위해 먼저 여호와께 물어야 합니다.(14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기 전에 나름 자세하게 관찰하고, 의심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4~5절, 7~8절)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기 전, 성급하게 혹은 경솔하게 무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속이려고 작정한 기브온 사람들의 꾀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분별력을 신뢰하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여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 충분히 묻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변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고백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걸음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둘째, 실수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19~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원망이 시작됩니다. 16~18절입니다. 그 때, 1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상기시키고, 자신들의 실수를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20절과 21절에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맹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책임하게 약속을 저버리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의 실수가 더 큰 하나님의 진노로 나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셋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십시오.(23, 27절)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을 끝까지 읽으면, 그냥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닙니다. 23절과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길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 백성의 한 부분이 되어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갑니다.(에스라의 포로귀환 명단, 느헤미야 성벽 건축)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3/13(월)	3/14(화)	3/15(수)	3/16(목)	3/17(금)	3/18(토)	3/19(주일)
수 2-4	수 5-7	수 8-10	수 11-13	수 14-17	수 18-20	수 21-22

QT

이번 주 QT 말씀

3/13(월)	3/14(화)	3/15(수)	3/16(목)	3/17(금)	3/18(토)	3/19(주일)
삼상 22:1-10	삼상 22:11-23	삼상 23:1-14	삼상 23:15-29	삼상 24:1-15	삼상 24:16-22	삼상 25:1-13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 후회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3.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4. 나의 실수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